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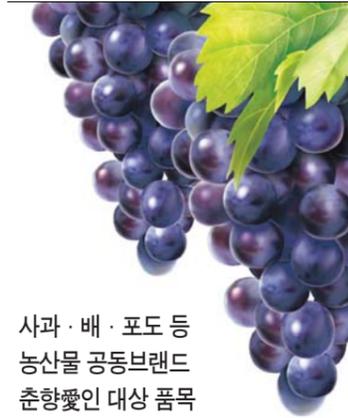
# 지리산·섬진강서 자란 과일 '춘향애티' 마른 재료에 찹쌀 풀 발라 튀겨낸 '부각'

외국 농산물 개방이 시작된 1990년 등장해 신선하게 다가왔던 신도불이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고루해진 표현이 됐지만 그 뜻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호남의 젖줄인 섬진강을 보유하고 수량이 풍부한 넓은 평야지를 보유하고 있는 남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이 우리나라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는 것을 보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원은 고랭지와 평야지가 공존하는 곳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천혜의 자연이 주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남원시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며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티'를 대표 브랜드로 다양한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남원은 동쪽에는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서쪽에는 너른 평야지대가 자리하며 대한민국 그 어느 곳보다도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사과·배·포도 등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티 대상 품목 '우수성 입증'

고소한 향·풍부한 영양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부각, 명절 선물로 '제격'

추까지 다양한 재료를 튀겨내 만들어낸다.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인기가 높으며 아이들 간식으로도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튀김음식 특유의 바삭함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고소한 향과 풍부한 영양이 아이들이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게 만든다.

지리산으로 대표되는 청정자연환경에서 자란 품질 좋은 재료로 튀겨낸 남원부각, 추석을 맞아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남원 대표 농특산품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인정한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티', 그리고 대한민국 생산의 65%를 차지하는 '남원부각'이 앞에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남원=김기투 기자

## 춘향애티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티'

춘향애티, 문화작품의 제목 같은 이 이름은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이다.

사과, 배, 복숭아, 매실, 포도, 딸기, 메론, 수박, 토마토, 복분자, 오디, 상추, 파프리카 등이 '춘향애티' 대상품목이다.

우리는 농산물 거래 하면 떠오르는 모습으로, 떠들썩한 아수라장 같은 공간에서 서로간의 소식을 물으며 조금이라도 가격을 흥정하기 위해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는 5일 장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5일장에서 꼼꼼하게 물건을 살피고, 서로 간에 조금은 지루한 흥정 끝에 맘에 드는 농산물을 양손에 들고서 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장날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지도 늘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는 이러한 매매 방식의 진입에 가속을 더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신뢰다.

소비자들이 브랜드 이미지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동안 남원농산물은 50여개의 브랜드가 난립하며 뛰어난 품질에 비해 유통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항상 받아왔다.

이에 남원시는 소비자 인지도와 남원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2년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티'를 개발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티'은 남원의 문화유산인 춘향과 청정 춘향골 남원에서 정성

껏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춘향애티'은 2013년 첫해 600억원 매출을 시작으로 매년 판매액이 늘어나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해 전국 12대 농산물브랜드에 선정되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받았다. 3년째인 2015년에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고품질 농산물 공동브랜드 부문에서 대상을 받아 남원농산물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또, 2015년부터 4년 연속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지원을 받아 농산물 매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미디어가 인정한 인싸템, '남원부각'

기름이 흔하지 않던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에 재료를 '튀김' 요리들이 흔치 않았다. 기름이 흔해진 지금도 전통음식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 튀김요리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기름에 튀긴 요리가 전해지긴 했다.

바로 한과와 부각이 대표적이다. 그 중 부각은 남원의 대표 음식이다.

그리고 남원에서는 '남원부각' 역시 브랜드 화하며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남원부각은 얼마 전 남원과 인연이 닿아있는 인기

걸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예능방송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며 유명세를 톡톡히 치른바 있다. 부각은 밀가루나 달걀을 입히지 않고 마른 재료에 찹쌀 풀을 발라서 그대로 튀겨낸다. 재료는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김부터 갯잎, 다시마, 가죽인, 등백인, 국화잎부터 쫄고

## 여동행,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으로 오세요!



순창이 참 좋단다. Co. (Sustain Your Life with Goodness)